

# 高麗石塔의 研究

— 在銘作品을 中心으로 —

黃 壽 永

## (一) 序

高麗一代 五百年에 걸치는 우리나라 塔婆의 研究는 아직도 本軌道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 現存遺構의 數와 質이 그 一代가 또한 佛敎를 國敎로 삼았던 시대이며 大小寺院의 建立이란 아마도 前代를 凌加하여서 國土全域에 普及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韓國塔婆의 主流를 이루었던 石塔은 이 時代에 이르러 비록 地域의 差別相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韓國塔婆의 眞面目을 十分發揮하였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韓國石塔의 土着化는 진실로 이 一代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三國末에 이르러 三國에서 發生한 우리의 石塔이 新羅統一을 契機로 七世紀後半에 이르러 비로소 典型樣式을 얻었으며 이어서 八, 九兩世紀에 있어서 비단 新羅의 옛 版圖였던 慶尙道 旌牙 나라 그 全域을 넘어서 忠淸·全羅·江原에 이르기까지 新羅石塔의 建立을 보게 되었다. 十世紀前半 高麗의 新王朝가 애써 後三國을 再統合하고 國都를 한반도의 中原인 開京에 定都함에 이르러 다시 安定과 繁榮의 時代를 맞이함에 佛敎文化는 新國都를 中心으로 다시 活力을 얻었고 國敎로서 前代에 이어 佛敎가 崇奉됨에 寺院建立이 再開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의 建國에 곧 이어서 王京에 소위 「都內十刹」로서 法王寺를 으뜸으로 삼아 十刹을 起기한 것은 國家의 鎮護를 佛法的 助資에 의하여 이루고져 하였기 때문이다. 또 太祖가 나라의 安寧을 빙기 위하여 開京

七層塔, 西京九層塔을 새로 建立하였으며 新라의 皇龍寺九層塔은 고려 一代를 통하여 重修를 거듭한 그 까닭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佛法은 고려에 이르러 글자 그대로 최대의 興盛을 이루고 政敎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깊이 民心에 스며들어서 그 土着化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시대의 佛敎美術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新羅의 그것에 비하여서도 뒤떨어져 있으며 그 基本資料에 대한 調査에 있어서도 아직도 만족스러운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外人의 發說을 그대로 따라서 고려 一代의 美術을 過小評價하려는 일반의 경향이 뿌리깊다. 그것은 理由의 하나로서는 當代의 作品이 보존 전래되지 못한 곳에 그 큰 원인이 있겠으나 한편에 있어서는 그 收拾과 研讀을 위한 自身의 노력이 따르지 못하였던 곳에도 있다. 一例를 들어서 국내寺院에서는 고려의 佛畫가 거의 傳하지 못하였는데 바다 건너 日本에서는 약 一百點에 달하는 고려 佛畫가 近年에 개최된 高麗佛畫展(日本奈良市大和文華館)을 계기로 綜觀되었으며 新資料도 발견되었다. 이같은 기회를 잡아서 國內의 美術館에서도 日本美術 館 등에서 여러 點의 고려 佛畫를 購入할 수가 있었던 것은 高麗寫經의 相當數가 이와 거의 배를 같이하여 還國한 사실과 더불어 多幸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일찌기 보지도 못하고 듣기조차 못하였던 이 部門에서의 높은 發達相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고려미술의 一部에 불과하나 그에 대한 우리의 知見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다.

다음에 本小論에서 논의될 고려石塔의 연구를 위하여 現存하는 石塔 중에서 石塔 그 자체에 記銘이 새겨져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建立의 年代와 因由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作品을 一次의 選定하려 하였다. 그중에는 既往에 學界에 알려진 유구도 들어 있으나 그 이외에 最近年에 이르기까지 새로 발견조사된 新例 또한 여러件이 있어서 本論考에 포함시킬 수가 있었다. 다만 이같이 建立年代를 그에 수반된 金石文資料에 의한다 하더라도 크게 두가지로 區分할 수가 있었다. 첫째는 塔身 그 자체에 직접 記刻이 이루어진 作品이며 다음에는 塔內

의舍利具와 더불어 또는塔에內藏되었던塔誌石 등의收拾으로서上記한塔身記刻의類例에 못지않은信憑度を지닌다고判定되는 것을擇하였다. 그러므로後者の 경우石塔에서遊離된채收拾된塔誌石도 함께 포함시키기로하였다. 신라石塔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찌기 서울경복궁정원에 옮겨진경복 金陵郡 西面 葛項寺東西三層石塔의 경우가塔 그 자체에記銘을 지니는唯一例로 알려져왔다. 이塔(東)의上層基壇의中石에는 다음과 같은五行의陰刻銘이 있어 일찍부터注目되어왔다.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娣姊妹三人業以成之

娣者零妙寺言寂法師在旅

娣者照文皇太后君妳在旅

妹者敬信大王妳在也

天寶十七年은 신라 景德王十七年(서기 七五八)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여 고려의 석탑에 있어서는上記와 같이塔身에 직접銘이 조각된例가 약十件에 아르고 있는 사실은 먼저 주목할만하다.

이같이 時代의 標識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같은 石塔例를 다음에 모아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 二塔身에 記銘을 지닌 作品

石塔研究에 있어서塔身 그 자체에 年代나 發願 또는 人名 등이 조각되어 있는 事例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들이 石塔 그 자체에서 조각될 때에는 그 건립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石塔系譜를 엮는데 있어서 標準作을 삼을 수가 있는 사실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많은 事例가 基壇의 面石을 利用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 (1) 忠南 韓山 芝峴里 三層石塔

第一塔身の面石에 八行으로 縱書되어 있어 磨滅이 심하나 다음과 같

이判讀되었다. 이塔은 현재 設墓로 인하여 原位置에서 옮겨졌으나 옛 寺域에서 傳來한 것으로 보인다.

銘 文(第一塔身 南面)

淳化二年歲次辛卯二月日

爲國 發願造塔記

時戶長 見鄉長 見縣長

信元長 潤別長 昕久長

梁梁立

在涼記 鉢奉僧 新見記

全禮記 縵結清 丁? 兪

岳遠兪 則成派?? 兪

字徑 三cm. 淳化二年은 고려 成宗十年 辛卯 서기九九一年에 해당된다. 石塔은 원래 五層으로 추정된다.

(參照) 鄭求福교주·百濟研究十四집 忠南大百濟研究所一九八三年刊.

### (2) 醴泉 開心寺五層石塔

경북 醴泉郡 醴泉邑 南本洞에 있다. 基壇의 甲石과 中石의 楷書體로 記刻되었다. 字徑 一寸二分 내지 五寸. 朝鮮金石總覽(上卷一六九)등에 錯誤脫落이 있으므로 새로 李基白教授의 判讀을 따랐다.

上元甲子四十七統和二十七庚戌二月一日 正骨開心寺

到石析三月三日光軍貳六隊車十牛一千以十間入矣僧

俗娘合一萬人了入彌肋香徒上社神廉長長司正順行典福宣金由工達孝順

位剛香德貞

崑等卅六人椎香徒上社京成仙郎(兪叶 金叶)阿志大舍香式金哀位奉楊寸等

四十人

〈以上 上臺甲石처마〉

棟梁戶長陪戎校尉林長富母崔祐主副棟梁□□邦祐  
四弘爲身上報之佛恩爲國正功德普及於一切

辛亥四月八日立

〈以上 上臺中石東面〉

辛亥는 고려 顯宗二年 서기 一〇二一年에 해당된다.

〔參照〕

李基白·高麗光軍考(歷史學報三二十七輯 一九八五年 四月)

葛城末治·朝鮮金石攷(一九三五年刊)

(3) 開城興國寺塔

현재 開城市 子男山の 개성박물관 마당에 있다. 銘文은 基壇의 中石에 六行으로 記刻되었는데 楷書이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菩薩戒弟子平章事姜邯瓚

奉爲

邦家永泰遐邇常安敬造

此塔永充

供養

時天禧五年五月 日也

天禧五年은 고려 顯宗十二年辛酉 서기 一〇二二年이나 현재 塔身이나 옥개가完備하지 못하나 造塔銘이 있어 일찍부터 内外에 알려졌다. 一九八七年에 이르러 同年의 記銘을 지닌 石塔이 全南 高興에서 發見되었는데 塔材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었다.

(4) 高興豐陽面事務所石塔

一九八七年 여름에 새로 조사된 方形石塔인데 현재 第一層 이상은 완전하지 못하다. 원래 同面上林里 田五七七(孔奉春씨所有)에 전래하였는데 日政末期에 現住所로 移建되었다고 한다. 寺址는 高興邑에서 豐陽面所在地를 약 一、五km 앞두고 右便마을에 있다고 한다. (全南道の 成春慶氏報文) 塔銘은 기단의 面石에 새겨져 있다.

天禧五年辛

西十一月□□

□人得名僧祿□

棟樑□募寶任

士庶洪□同心

同願爲聖壽

天長國泰民安

法輪常轉□□

□□石塔□□

付棟樑知暹

天禧五年은 前項의 開城 興國寺塔과 同年으로서 注目된다.

(5) 堤川獅子頻迅寺塔

江原道 堤川郡 寒水面에 전래하는 石塔으로서 四獅坐像으로 塔身을 받치게 한 異型塔이다. 銘文은 基壇中石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字徑 一寸二分, 楷書體이다.

佛弟子高麗國中州月

岳師子頻迅寺棟樑

奉爲 代代

聖主恒居萬歲天下大

平法輪常轉此界他方

永消怨敵後愚生婆娑

即如花藏迷生即悟正

覺 敬造九層

石塔一坐永充供養

大平二年四月日謹記

建塔은 고려 顯宗十三年 서기 一〇二二年(太平은 契丹聖宗年號)이다.

〔參照〕

朝鮮金石總覽 上卷

葛城末治·朝鮮金石攷

(6) 漆谷 淨兜寺五層石塔

이탑은 현재 서울 景福宮庭園에 옮겨져 있다. 原寺址는 경북 칠곡군 若木面福星里이다. 銘記는 基壇中石에 있어 字徑 약 四cm이다. 移建할 때 紙本墨書한 石塔造成形止記 등이 발견되었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釋知□  
特爲

家國恒安兵戈永

息百穀豐登敬造

此塔永充

供養

太平十一年辛未正月日

□願□

太平十一年은 고려 顯宗 二十二年 서기 一〇三一年이다.

〔參照〕

博物館陳列品圖鑑 第十三輯

(7) 寧邊 普賢寺塔

銘文은 제二층 塔身에 있고 字徑三cm 楷書體이다. 許興植교수編 金石全文(中世上一一九四、普賢寺石塔記)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다만 普賢寺碑文(大東金石帖)은 除外하였다.

年代는 고려 靖宗十年(一〇四四)로 推定된다 하였다.

□□□□州妙香山普賢寺

無 □□盛□韓境□□

奉告至尊□□

□愿以九層石塔□

帝尊像 □□□

伏愿

皇帝陛下德等乾坤明齊日月百姓燎□

〈以上 朝鮮金石總覽〉

〔參照〕

朝鮮金石總覽 上卷

許興植·韓國金石全文(中世上)亞細亞文化社刊

(8) 海州 神光寺石塔

황해도 해주 신광리 神光寺石塔의 塔身에 새겼는데 字徑 一寸八分. 楷書이다. 銘記는 二行으로 寺名과 年代뿐이다.

神光

至正二年成

年代는 고려 忠惠王 復位三年 서기 一三四三이다.

〔參照〕

朝鮮金石總覽 上一七四 神光寺石塔記

(9) 開豐 敬天寺石塔

현재 서울 景福宮에 再建되어 있다. 塔記는 제一층 塔身 楣間에 記刻되어 있다. 이탑은 원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부소산 경천사터에 있었는데 한말 日本人 田中光顯에 의하여 해체되어 日本동경으로 운반되었다. 그후 다시 반환되어 해방후 재건되었다. 塔記는 다음과 같다.

大華嚴敬天祝延皇帝陛下萬萬歲皇后皇□□秋文虎協心奉□□調雨順國泰  
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現獲福壽當生□□覺岸至正八年戊子三月 日大  
施主重大臣晉寧府院君姜融大施主院使高龍鳳大化主省空施主法人六怡□  
□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道

至正八年은 고려 忠穆王八年 서기 一三四八年이다.

〔參照〕

朝鮮金石總覽 上一文教部·國寶圖錄 第五輯(石塔篇)  
高裕燮·松都古蹟—扶蘇山 敬天寺塔

### 三 塔誌를 지난 石塔

石塔에 內藏되는 舍利具以外로 塔內에는 建立의 年代나 發願 또는 關係道俗人名을 記刻한 方形平薄한 誌石을 藏置하는 事例가 또한 不少하다. 이 같은 誌石의 發見으로서 石塔에 관한 關係 知見이 밝혀지므로써 석탑 연구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塔誌는 주로 石板으로 造成하는 바 그 以外에도 드물게 金屬板이나 紙類에 陰刻하거나 墨書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記銘을 別箇로 造成하는 이외에도 舍利器 그 자체에 記刻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本論에서는 그 같은 類例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塔身에 직접 記刻된 경우와는 다르지만 別箇로 塔誌를 作成하여 建塔과 동시에 塔內에 藏置하므로 그 學術價値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項을 바꾸어 이하 誌石을 주로하며 收拾事由가 分명한 것들을 우선하였다.

#### (一) 安城 長命寺石塔誌

이 誌石은 가로 一三 cm 세로 二二 cm 의 蠟石에 記刻되었는데 字大 一 cm 이다. 一九七二年 경기도 安城郡 二竹面竹山西部洞五一二번지의 寺址에서 出土申告된 것으로서 現場에는 蓮花紋이 있는 石塔材 一部가 남아 있다고 한다. 塔誌는 현재 國立博物館陳列中.

□(淳)化十五年 □四月二十七日國□人  
安願以長命寺五層石塔造立香

徒姓名如後

棟梁大行明徒□爲戶長安帝□金正崔

□伯士禮靈□□金位等

□色光□師玄肯鑰匠兄未知

淳和는 宋 太宗의 年號로서 그 十五年은 高麗 穆宗 七年(甲辰)서기 一

〇〇四年에 해당한다. 淳化에 잘못이 없다면 現存하는 高麗塔誌石의 最古品이 될 것이다.

誌石에 보이는 長命寺五層石塔은 約十五年前에 同郡 一竹面月井里九九의 誠元牧場으로 賣渡되어서 上記한 住所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 石塔 또한 현재 二層까지만 남아 있으며 單層基壇을 갖고 있다. 그 樣式에서 隣近의 奉業寺五層石塔(二竹面·寶物指定)과 매우 類似하여서 年代가 近似함을 깨달았다. 上記와 같이 蓮花文塔材는 볼 수가 없었고 佛像의 蓮化紋臺石 一個가 塔址와 가까이 巨大한 佛像蓮花坐臺의 破損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佛像은 光背片이 남아있을뿐이다. 그리하여 이 長命寺塔은 비록 場所를 바꾸었으나 保存된 것은 그 塔誌의 發見과 더불어 高麗 初期石塔의 하나로써 注目되어야 하겠다.

#### (二) 靈巖邑內 聖風寺五層石塔

一九八七年 廢塔으로 二層이하의 塔身과 기단만을 남기고 있던 이 五層石塔의 復元工事が 이루어졌다. 그때 第一塔身石中央의 方孔에서 破碎된 얇은 靑石誌石이 收拾되었다. 月出山을 背景으로 삼은 이 새로운 石塔은 이 誌石의 발견으로 그 價値가 한층 높아졌다.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菩薩戒弟子高麗國靈

岳縣戶長朴文□特爲

邦家□盛朝野益安

敬造立五層石塔安

置聖風大寺永充供

養也

統和二十七年己酉六月日記

이 誌石은 最新의 一例인데 靑瓷有蓋塚의 舍利器와 같이 收拾되었다. 石塔年代는 高麗 穆宗十二年 서기 一〇〇九年으로서 高麗 初期의 石塔임이 밝혀졌다. 동시에 聖風이란 寺名과 戶長 朴某의 發願임도 알려졌다.

#### (三) 令傳寺 普濟尊者塔誌石

강원도 원주군 本部面의 令傳寺址에서 전래하던 三층석탑 二基는 오늘날 서울 경복궁 정원에 移建되어 있다. 이 탑을 옮길 때 발견된 誌石縱 二〇cm、字徑四分 楷書는 오늘 國博에 보관되어 있다. 浮屠이나 그 樣式이 一般型三層塔과 같으므로 이곳에 포함시켰다. 洪武二十一年은 고려 禡王十四年 서기 一三八八年이다.

道人覺修

王師普濟尊者舍利一枚主塔

安邀比丘尼妙寬同舍利一枚

東塔安邀

大功德主奉翊大夫徐允賢

法名覺喜

妻氏丹山郡夫人張氏法

名妙然(以上前面)

石手道人覺訓

爐冶道人覺清

勸化比丘覺如

洪武二十一年戊辰四月日誌

牧使姜隱(以上後面)

(四) 東邊塔誌石

一九六六年 九月頃 所在地不明의 石塔에서 盜取된 方形의 靑石誌石 二枚中 初建時의 것만 全文을 다음에 옮긴다. 이 誌石은 현재 東國大博物館이 보관하고 있으나 原所在塔은 알 수가 없다. 統和二十三年은 고려 穆宗八年(一〇〇五年)이다. 이 誌石은 長과 橫各 一一cm 兩面各六行으로 字徑은 一、五cm.

維統和二十三年歲次

乙巳五月二十日東邊

塔佐落治建時

寺主嵩敎定性大

師和秀和尚時造一

千佛祖堂五間千佛(以上前面)

堂九間 助成徒衆

第一坐契元 院主光慶

典坐祐暹 史琳相

大唯乃利聽 副唯乃利緣

旁頭利善 千佛太匠

崇禮等三百餘人(以上後面)

〔參照〕

黃壽永編·韓國金石遺文 六九

(五) 長岬寺靑石塔

이 靑石塔의 所在와 그 樣式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資料模寫는 海防직후 필자가 國立博物館에 재직중 入手하여 오래 간직하는 것이므로 다음에 옮겨서 고려塔誌石의 하나로 삼고자 한다.

奉佛弟子高麗國清州牧內清塘地長岬寺住持重大師靈椿妓者以

聖祚無彊儲齡有永文虎百官忠

清輔國于戈息靜風雨調和先亡

嚴父超生淨土現在慈母延命長

生普及含靈齊登彼岸之願敬造

靑石塔一座九層兼香臺安置釋

迦文佛以立金剛種子云

時正豐七季三月 日誌

年代는 고려 毅宗十六年 서기 一一六二年으로 추정된다. 고려一代를 통하여 유행된 靑石塔의 하나에서 發見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그 조사가 있어야 하겠다.

〔參照〕

黃壽永·韓國金石遺文 七三、長岬寺靑石塔記

(六) 密陽 小臺里五層石塔發見墨書銘

이 石塔에서는 一九一九년에 白紙墨書銘이 발견되어서 故李弘植博士에 의하여 「考古美術」紙(五의 六、七號、一九六四年)에 紹介된 바 있다. 비록 誌石은 아니나 塔內에서 전래한 文書(가로 六〇cm, 세로 四〇cm) 이기에 이곳에 포함시킨다. 이 文書는 이 五層石塔의 建立年代를 추정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塔記文은 다음과 같다.

乾統改年三月九日記

至今二百六新龍二年良中律業皇龍寺沙門惠照亦住持爲乎矣亦中同寺依止重大師學先亦至今八壬午年入寺火香爲只丁亥年元發心爲只金堂一間佛坐即造石塔五誦新造鑄銅并六十二斤金堂塔各胤香盧香盒拜柒捌斤五兩鐵物一千百斤三寶內鑄瓮一入十一斤拜(以)施行緣由。(印吏讀)

住持主法顯儀重大師學先

效上幸冲次幸先次應達次元先等亦造成日

施行

同寺前住持 □(尙) 資法護重大師住持廿年

乾統九年은 고려 睿宗四年(一一〇九)이며 丁亥年(一一〇七)에 學先이 發心하여 石塔五誦등을 新造하였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인가. 이 古文書가 과연 이 塔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면 고려前期의 年代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作品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紙質이 새로운 것 같다는 疑心도 있으나 이것을 소개한 李博士는 그에 찬성하지 않았다. 再調의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參照]

李弘植·高麗堂塔造 成緣由記(考古美術)五一六七

四 結 言

이상에서 고려의 石塔으로서 그 建立年代를 推定할 수 있는 作品으로 合計十五基를 들었다. 그리고 이들을 兩分하여서 石塔의 身部에 직접 記刻한 作品과 塔內에 따로 藏置한 塔誌를 區別하였다. 後者는 大部分 石材인바 石塔에서 확실한 方法으로 收拾된 것과 不幸하게도 遊離되어서 所屬石塔을 알 수 없는 것을 함께 포함시켰다. 그 以外에 例外이기도 하나 白紙墨書의 塔記文이 일찌기 그 相輪部에서 발견되어 民間에 보존된 例를 一件紹介하였다. 이밖에도 필자가 아직 모르는 塔誌의 資料가 또 있을 것이며 앞으로 新例를 기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現在의 資料만으로서도 塔誌가 新羅塔에 비하여 월등하게 多數알려진 것은 매우 多幸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 計十五件의 塔誌類가 그 年代에 있어서 十세기 前半에 集中되어 있는 사실은 특히 注目할 만하다. 十五件을 간단하게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十世紀後半 一件

十一世紀前半 九件

十二世紀後半 一件

十四世紀前半 二件

十四世紀後半 一件

□□□□

石塔의 年代推定은 塔誌 이외에도 寺蹟記文이나 舍利具의 記銘등을 통하여서도 밝힐 수가 있다. 또 寺蹟碑文이 전래할 경우도 있다. 한편 이같은 文字資料에 이외에도 石塔 그 자체의 樣式考察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高麗의 佛敎文書나 寺刹史料가 豊富하지 못한 오늘날의 實情에서 石塔研究을 위하여 本稿에서 들은 것과 같은 誌石資料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 연구를 위하여 이같은 資料의 收拾이 한층 기대된다(一九八七年十一月二十四日)

晉崔戒弟于平晉平華妻 郡頭

奉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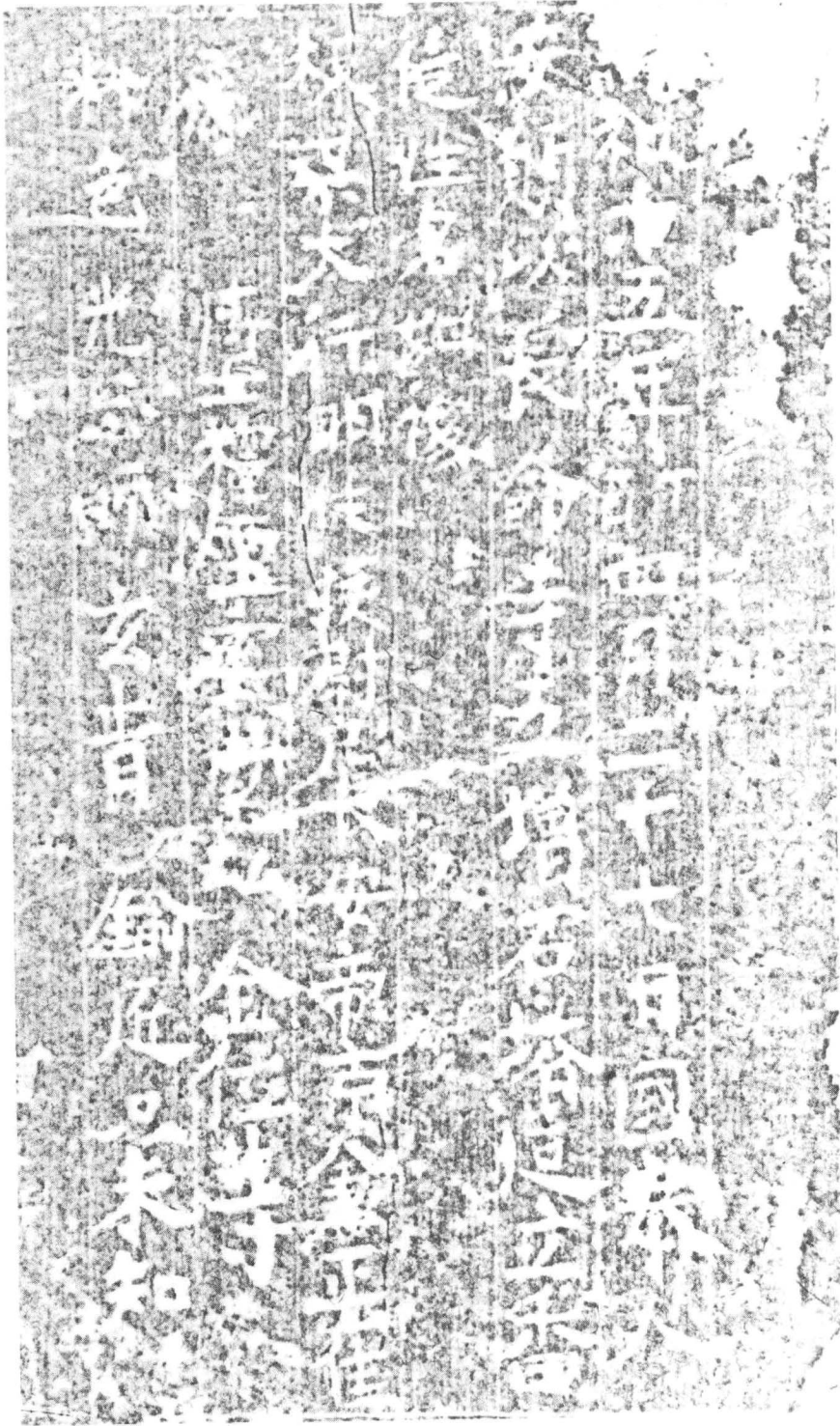
郭家來奉還 造安敬造

此塔永充

供養

時天福五年五月 日也

京畿 安城郡 二竹面 二竹里 石塔의 塔誌拓本



長命寺 塔誌

原) 경기도 안성군 二竹面 竹山里  
現) 국·박소장 (유물번호 신 2750)